

코티지 가든에 표상된 영국성

조혜령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Englishness represented in a Cottage Garden

Cho, Hye-Rye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Gardening activities, plant raising, and general flowerbeds the public makes today can be found in the original form of cottage gardens in the United Kingdom. A cottage garden is a popular garden style of modern Britain, implying unique Englishness including ethnic sense and vernacular.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modern movement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past 200 years and read Englishness of cottage gardens through style differentiation and background of occurrence of cottage gardens appearing in this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view of nature of the Englishman loving freedom and landscape acts as a key part of patriotism and is connected to the preservation of idyllic England. For this ideal of the Englishman of the country, idyllic British characteristics are found in various literatures and artistic fruits; cottage gardens, that is a form of new garden, were made with invigoration of supply and collection of plants. Second, an early form of cottage gardens was the domestic garden, in which there is a vegetable garden by middle-class move to a suburb according to urbanization, but evolved into a form of garden having both artistry and regionality, vernacular,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with various situations of modern society(handicraft promotion movement, preservation of remains, and ancient building restoration movement). Wild gardens occurring in this process are a type of garden realizing wild fields and forests in the United Kingdom;they have made a big impact on many garden designers up to now. Cottage gardens, reflecting a variety of Englishness, is a subject of city planning and flower shows and is a culture symbolizing the United Kingdom.

Key Words : Patriotism, Pastoral England, Plant Collect, Garden Centre, Vernacular Garden, Wild Garden

국문초록

오늘날 대중들이 만드는 일반적인 화단의 형태나 식물 가꾸기 및 가드닝 활동은 영국의 코티지 가든(Cottage Garden)의 원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코티지 가든은 근대 영국에서 발생된 대중적 정원양식으로 민족성(Ethnic sense), 토착성(Vernacular)을 비롯하여 특유의 영국성(Englishness)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0여 년 간의 영국의 근대적 움직임의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 속에 출현한 코티지 가든의 발생 배경과 그 특징 고찰하여 코티지 가든이 내포하고 있는

Corresponding author: Hye-Ryeong Cho,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Tel.: +82-2-876-9333, E-mail: hyecho@snu.ac.kr

영국성을 읽어 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유와 풍경을 사랑하는 영국인의 자연관은 애국주의 핵심요소로 작동하여 전원적 잉글랜드의 보존과 연결된다. 이러한 시골에 대한 영국인들의 이상(Ideal)은 다양한 문학 및 예술적 산물로부터 영국인의 전원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식물수집과 공급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정원의 형태인 코티지 가든을 발생케 했다. 둘째, 초기 코티지 가든의 형태는 도시화에 따른 중산계층의 교외 이주로 인하여 채원이 존재하는 자급농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근대사회의 상황과 맞물려(공예진흥 운동, 유적보호 및 고건물복구운동) 예술성과 지역성, 토착성, 생태성을 겸비한 정원의 형태로 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와일드 가든은 영국의 야생들판과 숲을 재현한 정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원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국성이 투영된 코티지 가든은 도시계획, 플라워쇼의 주제로 등장하며, 영국을 상징하는 문화로 존재한다.

주제어 : 애국심, 전원적 잉글랜드, 식물 수집, 가든센터, 토착정원, 와일드 가든

1. 서론

정원개념 범주의 변화는 곧 한 국가의 문화 발전의 역사를 간파해 낼 수 있다는 지적처럼 정원은 국가적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Sung, 2012)이자, 그 양식은 당대 사회적 맥락과 문화를 반영(Hunt, 2012)한 실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200여 년간의 영국 정원사(史)의 변화 속에 출현한 코티지 가든(Cottage Garden)은 현재 영국의 '대중적 정원 양식'을 상징함으로써 산업화, 도시화 등의 근대화 물결 속에서 대중문화 발달과 함께 시민 정원문화의 장을 열었다. 이는 곧 정원사들의 무대가 궁궐(palace)에서 코티지(cottage)로의 이동(Owen, 2004: 25)이라 평가되며, 대규모에 적합하였던 풍경식 정원양식은 점차 쇠퇴하게 되고,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땅을 보유한 중산층들이 전원을 그리워하며, 도시 근교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불러왔다. 이들은 꽃과 채소를 심으며, 자급농원의 형태로 유지해왔고, 다양한 식물의 조합을 통해 여가로서의 가드닝을 즐기게 되었으며, 이는 근대 시민정원 양식으로써 진화를 거듭하였다¹⁾.

오늘날의 대중들이 식물의 조합을 통한 '정원 만들기' 및 '가드닝' 활동은 바로 근대 영국의 코티지 가든의 원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영국의 민족성(ethnic sense), 토착성(vernacular)을 비롯하여 나아가 특유의 영국성(Englishness)을 함축한 형태로서 자리 잡아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대중적 정원양식인 코티지 가든의 출현을 중심으로 양식의 발생 배경과 특징 등을 통해 코티지 정원에 표상된 영국적 특성, 즉, 영국성(Englishness)²⁾을 밝혀내는 연구로서 국내 시민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고자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관공서, 학계, 연구계, 산업 및 민간 등 각계에서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 이는 전문적인 실천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한 연구단체에서는 그 결과물로 한국의 생활형 실용

정원 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실험테스트 베드 3개를 활용형, 휴식형, 텃밭형으로 선보이기도 하였다(Korea Landscape Architecture Newspaper, no.416). 이는 누구나 쉽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한 현대적이며, 기능적 목적을 가지지만,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모델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그 외 정원과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Sung(2012)은 토머스 제퍼슨의 아카데미컬 빌리지와 몬티첼로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원에 표상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중농주의의 개념을 열거하며, 작정자의 미국 건국이념과 자연에 대한 가치관 등을 고찰하였다. Joo(2003)는 자연과 풍경이 민족과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생산하고, 특히 이것을 근대적 현상이라 해석하며, 19세기 미국의 국가정체성을 정치적 풍경과 관련시키며 연구하였고, Park and Lee(2014)는 덤바톤 오크(Dumbarton Oaks)를 대상으로 미국의 지역성과 후기 신고전주의적 정원 양식에 관해 연구했다. Peak *et al.*(2014)은 파커정원, 마운트버논, 몬티첼로를 중심으로 정원의 요소와 공간구조를 분석했지만, 미국 초기 국가시대 전환기적 특수성과의 관련 언급은 없었다. 그밖에 영국 코티지 가든에 대한 연구로 Park(2010)은 색상중심의 재식설계 방법으로서 주제정원 중 하나인 화이트 가든의 초화류 설계 기법과 20세기 초기 코티지 가든의 공간설계와 화단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Cho (2016)의 최근 연구에서 코티지 가든은 영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산계층의 출현과 왕립원예협회(RHS)의 창립 및 식물수집 활동에 의해 발생된 대중적 정원 양식이라 주장한 바 있으나, 정원양식과 영국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근대는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의 시간적 범위이다. 서양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근대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1830년대를 기점으로 갖추어 졌다고 보는데(Hauser, 1999: 3-6), 이는

두 혁명(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주택난과 빈부 격차, 시민사회 형성, 대중문화가 나타나는 등의 사회상들이 문화사적 관점에서 지대한 영향력으로 행사되었으며, 이는 조경사의 흐름에도 변화를 주게 되는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근대성은 특유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데(Hobsbawm, E. and Ranger, T., 2004), 역사가들마다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박지향 외 다수 서양학자들은 영국성(Englishness)은 근대 초기에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 지속과 변형의 과정을 거친 것(Park, 2006: 11)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근대는 본 연구의 이론적 자원으로써 시간적 범위에 해당되며, 이후 20세기 에드워드 통치기(1901~1910)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영국 전역의 일반 가정집 코티지 가든은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방법은 역사적 상황과 사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기에 관련 문헌과 사료를 조사하는 역사적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식물이 주를 이루는 정원의 특성상 근대 영국의 상황을 묘사한 문학, 회화, 회고록 등은 당대 일상적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어 사회상과 문화 풍속을 아우르는 다양한 미시담론으로써 소중한 논증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코티지 가든의 출현배경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본다. 다양한 문화적 산물들을 재료로 보고, 근대적 맥락에서 영국적인 것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을 살펴본다. 이는 회화와 문학작품, 포스터, 연설문, 간행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하며, 코티지 정원의 연원과 영국적 자연관의 고리를 찾는다. 4장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근원을 통해 발생한 코티지 정원에 표상된 영국성을 정리하고, 5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III. 코티지 가든의 출현 배경

1830년 라우던(J. C. Loudon)의 『코티지 가든을 조성하기 위한 매뉴얼(A Manual of Cottage Gardening)』에서 소개된 소규모 정원들에 대한 글에서 코티지 가든의 근원을 살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영국인의 '전원에 대한 이상(Ideal)'이라 볼 수 있다. 본래 '코티지(Cottage)'는 중세 농장의 노동자 주택을 의미했으나(Kim and Huh, 2008), 영국 근대시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노동계층과 중산계급의 교외 이주 현상이 낳은 새로운 주거형태로서 변화되었다. 따라서 정원의 양식에도 영향을 주며 전문 조경가들에 의해 탄생한 귀족적 성격의 정원이 근대 이전의 정원문화였다면 코티지 정원은 이와 반대되는 실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반 시민의 실천적이

고 대중적이라는 특징에서 이전 시대의 정원문화와 구분된다(Helmreich, 2002). 노동계층의 재배정원(채원)과 중산층의 이상을 표현한 가정정원(Domestic Garden)은 코티지 정원의 초기적 형태로 19세기 라우던의 가드네스크(Gardenesque)양식과 함께 아츠 앤 크래프트(Arts & Craft)정원, 야생정원(Wild Garden), 현대정원(Modern Garden)과 같은 형태로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영국 근대조경의 특징은 영국민의 전원애에 대한 이상과, 전원을 지키려는 애국심, 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수집, 탐험과 같은 배경으로 정리되며 코티지 가든의 등장 배경을 예고한다.

1. 전원애에 대한 이상(Ideal for Pastoral)

'잉글랜드의 마을은 위대한 성인의 유골과 같다. 지붕과 담장은 들과 나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여관과 사거리와 시장의 자연스러움은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매우 고귀하다. 이것들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국민적이고, 정상적이고, 잉글랜드적인 것들이다.'

(Lowenthal, 1991: 213)

국민 정체성은 그 국가의 풍경을 배제하고 정립될 수 없다(Park, 2006: 57). 영국인들이 선호하는 질서와 아늑함은 영국인 대부분이 애정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골의 구릉지와 맞닿은 하늘, 그곳에서 풀을 뜯고 무리지어 있는 양떼의 이미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의 전 총리였던 볼드윈(Baldwin Stanley)역시 재임기간 중의 연설에서 '본인에게 있어 조국은 시골이고, 시골은 또한 조국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912년에 발표된 글에서도 "이 녹색 들판, 이 언덕과 계곡, 이 관목과 과일나무들, 이 부드러운 풍광이야말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잉글랜드라고 확신한다(Colls, 2004)."라고 기술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영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대대적인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851년 인구조사에서 총 인구 2,230만 명 가운데 50퍼센트 이상이 인구 5만이 넘는 도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이념과 정서는 전원적이였다(Musgrave, t. et al. 2004: 172). 전원이 잉글랜드적인 것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더욱 팽배해졌으며, 사람들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현실에 좌절하며, 그와 반대되는 시골과 전원에서 이상적 영국을 보고자 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건축, 미술, 문학 등의 예술과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로 확산되며, 전원을 찬양하였다(Park, 2006: 78).

미술에서는 영국의 이상적 시골을 표현한 것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컨스터블(John Constable)의 <건초수레>는 국가적 상징물이 되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Figure 1 참조). <건초수레>에 등장하는 윌리롯의 오두막집(Willy Lott's Cottage)은 이후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에 기증되었고, 토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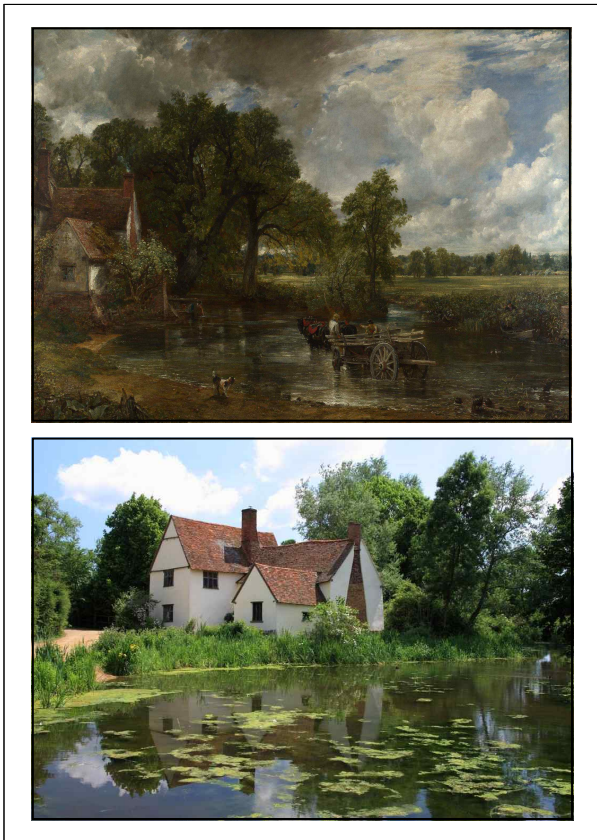


Figure 1. Hay-wain by John Constable(above), Willy Lott's Cottage (blow). His famous view of a hay cart, or 'wain', crossing a river at a ford. For many years the site has been in the hands of the National Trust, which organizes 'Constable Country' tours of Flatford in Essex, UK and the surrounding countryside

Source: <https://www.nationalgallery.org.uk/paintings/john-constable-the-hay-wain>(above)

© Cho Hye-Ryeong, July 2007(blow)

스룩여행사(Thomas Cook Group)와 그레이트 이스턴 철도 회사(Great Eastern Railway)에서는 '컨스터블지방' 여행상품을 만들었다. 컨스터블이 표현하는 캔버스안의 자연과 영국은 잉글랜드적이며 가장 고귀한 영국정신이 흘러넘친다고 칭송했다(Daniels, 1994).

영국인들의 전원예찬은 녹지보존운동협회 및 호수지역방어협회(Lake District Defence Society)와 같은 단체들이 발족시켰는가 하면 러스킨(John Ruskin), 윌리엄모리스(William Morris), 에드워드 카펜터(Edward Carpenter) 등의 사회운동가들은 '땅으로 돌아가기' 캠페인을 지도했다. 이들은 산업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급진적인 도시화를 우려했다. 러스킨은 나무와 들판과 꽃과 녹색의 전원풍경을 "인간의 건강하고 정신적인 삶"에 본질적인 것이라고 칭송하기까지 했다(Marsh, 1982). 윌리엄 모리스는 자신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 (News from Nowhere)』(1890)에서 주인공 게스트(guest)가 맞이한 유

토피아가 실현된 시대에 대해 묘사하였는데, 모리스의 유토피아는 정원이 있는 도시(런던)와 목가적 마을 풍경에 관한 것이었다.

... 집들은 각각 세심하게 가꾸어 꽃들이 가득 찬 정원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원수에서는 지빠귀들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고, 여기저기 서 있는 월계수나 드문드문 무리지는 리임나무를 제외하면 나무들은 모두 과수처럼 보였다. 특히 체리나무가 많았고 그루마다 열매가 가득했다... 지금 이 나라는 낭비되거나 손상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필요한 주택, 오두막, 공장, 모두가 정돈되고 깔끔하며, 아름답게 산재한 하나의 정원이 되어 있다... (Morris, 2008: 84-134)

시골 풍경을 소개한 모턴(Henry V. Morton)의 『잉글랜드를 찾아서(In Search of England)』(1927)는 10년 동안 23쇄를 거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블래치포드(Robert Blarchford)의 『즐거운 잉글랜드(Merrie England)』(1984)는 20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는 칼 맑스의 사회주의와 시골생활을 기초하여 농업을 건강한 국가적 삶의 본질이라 정의하며,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강조하였고, 시골을 즐기는 것을 사회주의적 미래와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클라리언 클럽(The Clarian)을 조직하며, 이러한 전원적 여가 활동을 전국적 네트워크로 만들어 전원주의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주도했다(Park, 2006: 86).

전원에 대한 이상은 시골생활과 주말농장을 시도하는 도시인들을 증가시켰고, 자동차대신 걸거나 자전거를 타며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인기 있는 여가 생활로 번져나갔다. 이들은 진정한 잉글랜드에 대한 해답으로 전원에서 그 이상을 찾기 시작했다.

2. 영국의 국민성과 애국심

'아무리 먼 곳을 여행하더라도 잉글랜드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잉글랜드의 풍광을 지니고 다닌다. 5월의 초록 에베랄드 빛깔, 송어가 뛰노는 맑은 냇가를 덮고 있는 앵초꽃 카펫, 마을 잔디밭에서 벌어지는 크리켓 경기. 연한 푸른색 하늘에 높이 솟아 있는 교회 종탑이 그러하다' (Wright, 1991: 82)

풍경을 감상하고 탐색하려는 영국인의 자연관은 18세기 '픽처레스크(Picturesque)'적 취향에서부터 발견된다. 이러한 취향의 발전은 여행과 정원, 건축 및 예술분야에서 확산되었다. 영국에서 시작된 자연보호운동, 유적보호운동, 고건축물복구 운동들이 증명하듯 이는 영국 고유의 자연풍경을 경험하려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며, 풍경을 소중한 유산이라 생각하는 국민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Kumar, 2003).

이러한 영국인들의 자연관은 본질적으로 국가적 가치관의 표징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곧 '자유로운 영국'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한다(Park, 2006: 58). 자연풍경을 끌어들이고 가축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자연스럽게 뺀 가지들을 정원으로 들여담장 주변과 경계 짓는 대신에 주변 풍경과 연결시킨 것은 영국정원사에서 혁신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극도로 다듬어지고 통제된 프랑스 정원과 정치와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곧 영국은 자유롭지만 프랑스는 억압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자유’와 ‘풍경’을 사랑하는 영국인의 자연관은 곧 국민적 덕성과 연결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으로 고정시키며, 애국심으로 표출되는데, 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육군이 발행한 포스터의 시골 이미지는 영국적 자연관과 애국심을 동시에 보여준다(Figure 2 참조). “당신의 영국: 지금 그것을 위해 싸우시오” 주제의 포스터에서 보이는 전원적인 영국의 모습은 전쟁 속에서 진정한 조국을 찾고자 했던 영국인들의 애국적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잉글랜드의 녹색을 생각했고,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 것은 시냇물이 흐르고 버드나무가 드리운 녹색초원이었다(Park, 2004: 82-83). 이들이 전쟁의 참호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근원은 시골의 경험과 기억이었으며, 이러한 기억은 애국주의 핵심요소로 작동하여 전원적 잉글랜드의 보존과 전원에서의 삶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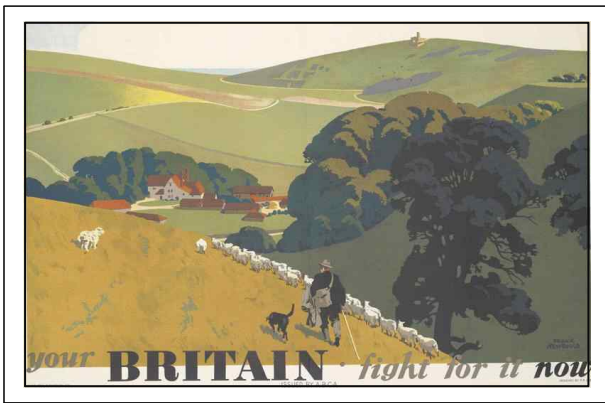


Figure 2. Your Britain-Fight for it Now[South Downs].
Poster by Frank Newbould during the 2nd world War to arouse patriotic feelings for an idealized pastoral Britain, defined by the landscape of southern England.
Source: © Imperial War Museums (Art.IWM PST 14887)

3. 식물수집과 식물공급경로의 발달

근대 영국의 채소와 과일, 꽃과 향수, 차와 커피 그리고 의약의 발달은 대영제국의 식물사냥(Plant Hunting)이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문화다. 식물채집은 과학적이고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영국 식민지 곳곳에 플랜테이션(재식농업)이 조성되었고, 이곳에서 축적된 경제 작물로 제국의 팡

창과 함께 부를 더했다. 이 점은 대영제국의 중대한 부분이었으며, 구체적인 식물 채집에 의해 영국으로 들어온 이국적인 식물들은 상품가치가 있는 것들이어야만 했다(Cho, 2016).

그 중 여러 대륙에서 들여온 꽃과 나무들은 200여년전 만하더라도 영국의 정원에서 볼 수 없었던 식물 소재였다.(Musgrave, t. et al. 2004: 12) 특히 코티지 가든에 있어 식재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근대 식물학자와 탐험가, 수집가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8세기 이전까지 영국은 열성적인 아마추어들에 의해 이국적인 식물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1804년 왕립원예협회(RHS)의 설립 기점으로 1821년에서 1864년 사이에 보다 전문성을 겸비한 10명의 식물사냥꾼(Plant Hunter)들을 임명하여 식물 수집을 후원(Sponsored)했다.(Campbell, 2004: 145) 아메리카 북서부 및 해안지역에 파견되었던 더글러스(David Douglas)는 현재까지도 영국정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물들을 수집하였다. 그 중 미송(*Pseudotsuga mensiesii*)과 전나무(*Abies procera*)는 더글러스 나무라 불리며, 영국 내 중요 산림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루피너스의 조상격인 다엽루핀(*Lupinus polyphyllus*), 양귀비, 사과, 배, 복숭아나무는 더글러스에 의해 발견되며, 코티지 정원에서 인기 있는 화단용 식물소재로 쓰였다. 그밖에 꽃 색이 뚜렷한 일년생 식물들은 남미 등에서 대거 유입되어 19세기 말 코티지 정원의 화단을 장식하는 식물로 쓰였다(Hobhouse, 2004: 226-227). 식물사냥꾼들에 의해 수집된 식물들은 왕립원예협회로 보내져 분류되었고, 풍토 순응 테스트 등의 과학적 연구 과정을 통해 견본정원에 전시될 수 있었다. 전시정원에는 통상적인 이름과 학명, 특징들을 기입한 명패가 붙으면서 식물은 단순히 흥미로운 구경거리에서 ‘삶의 대상’으로 전도되는 계기가 되었다(Hwang, 2014: 183). 이는 영국인들로 하여금 원예적 지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원예교육과 교화 모두 만족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주었다(Cho, 2016).

외래 식물의 도입에 따라 원예가 발달하게 되고, 식물 공급에도 변화가 생겼다. 왕립원예협회 멤버였던 라운든(J. C. Loudon)이 ‘새로운 식물의 재배법’이란 책을 출판하면서 많은 묘목상들이 점점 늘어나는 식물 수요의 시장성에 눈뜨기 시작한 것이다. 식물은 곧 돈을 벌어 주는 것(Owen, 2004: 14)임을 인지하고, 대규모 묘목장(Nursery)에서는 자체적 식물채집가를 해외로 파견해 상업성 있는 식물의 종자를 채집해 오도록 했으며, 식물 배양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정원 식물소재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했다. 그리하여 일반사람들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에 식물을 구입하여 자신의 정원 화단에 장식 할 수 있었다(Musgrave, t. et al., 2004: 173).

이는 당시 코티지 정원의 모습과 양식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중들로 하여금 가정의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물연구와 개발은 새로운 정원 소재의 탄생과 정원양식의 창조와 관련이 있으며, 식물 공급원의 발달은 대중적 정원 양식으로서의 코티지 가든을 진화할 수 있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IV. 코티지 가든에 표상된 영국성

영국의 조경사 연구자 릿슨(Charles Quest-Ritson)은 근대 코티지 가든에서 영국민의 뿌리와 정체성을 읽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Ritson, 2003: 201). 17~18세기의 켄트, 브라운으로 이어지는 풍경식 정원이 내포하는 다양한 사회적 의미들이나 픽처레스크적(Picturesque)인 성격도 영국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³⁾, 19세기 초 랩턴의 절충적 이론의 영향이 두드러지면서 라우든을 기점으로 정원은 특정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의 생활과 여가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정원문화가 보다 '쾌적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며, 실천적이고 전형적인 근대적 미학으로서 존재할 것을 주장한다(Anzai, 2005: 2004).

근대 초기의 코티지 정원은 매우 가정적(Domestic)이고 토착적(vernacular)인 성격으로 대중화 되었고, 20세기 초반에는 야생적(Wildness)인 형태의 분화를 거쳐 영국정원문화를 상징하는 양식으로 존재하며, 세계 각국의 정원문화에 영향을 주는 성공적 문화수출품으로 현재에 이른다(Groth and Bressi, 1997).

1. 가정적(Domestic)이고 토착적(Vernacular) 중산층의 이상

코티지 가든은 근대시기 근교로 이주한 중산층의 자급농원(自給農園, Domestic Garden)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꽃과 채소와 허브, 과실수 등을 심어 매우 실용적인 면모의 정원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Cho, 2016), 가드닝은 점차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고, 특히 빅토리아 여왕의 뒤를 이은 에드워드 7세의 재임기간(1901~1910)은 영국의 대중적 정원문화가 꽃피운 시대(Lee, 2014: 63)로 이 시기 문화적 소비의 주요 계층인 중산계급의 성장은 영국적 정원문화와 양식과 산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유적보호운동 및 고건물 복구운동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생태성과 경관을 고려한 토착정원(Vernacular Garden)의 형태로 진화되었다. 이는 당시 다양한 전원의 풍경화에서 그러한 성향을 엿볼 수 있다(Figure 3 참조).

지역 가든 센터(Garden Centre)와 재배원(Nursery)의 성장은 토착적 코티지 가든의 질적 성장과 대중적 정원문화를 산업화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재배원에서는 단순한 식물 기



Figure 3. Cottage Garden with an Vernacular flowers. Painting by Henry J. Sylvester (1870~1951)

Source: <https://www.liveauctioneers.com/>

르기에서 상품개발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운영되고, 대를 이어 지속 되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성과 가문의 특색이 반영되어 특유의 정원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반면, 정원센터는 그 자체만으로 영국인에게는 근본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식물 공급원인 재배원과는 달리 일반인에게 DIY용품 및 씨앗, 식물, 화분, 유기농차, 스포츠, 서적 등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하게 함으로써(Lee, 2014: 126), 새로운 여가생활을 즐기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 지역성(Regionality)을 겸비한 민속정원

코티지 정원은 점차 관상적 가치의 식물들을 조합해 예술성을 겸비한 정원 양식으로 진화되었다. 공예진흥운동(Art & Craft Movement)과 더불어 예술의 한 장르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됨으로써 코티지 정원의 화원구역(Border)은 다양한 식물의 조합으로 탄생되는 예술적 공간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화원 구역은 가장자리를 뜻하는 'Border'와 고대 게르만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Bed'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며(Kingsbury, 1996: 152), 가장자리식재(Border planting), 화단식재(Bed planting)라는 용어를 발생시키며, 코티지 정원 내 다양한 주제의 식재 문법을 파생시켰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국적 식물들을 전시하는 기능으로 단일 수종을 가득 채워 하나의 색과 질감을 강조하였으나(Figure 4 참조), 점차 다양한 다년생, 1년생, 덩굴, 또는 채소와 관목 등을 혼식하는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진화되었다. 이러한 화단의 식재에서는 지역성과 영국성이 동시에 가시적으로 들어난다(Figure 5 참조).

영국의 정원문화를 대표하는 첼시 플라워쇼의 경향에서도 영국성을 엿볼 수 있다. 쇼 가든(Show Garden) 분야는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제 정원



Figure 4. Victorian style flower bedding around Buckingham Palace (above) and Regent's Park(blow) in London

Source: © Cho, Hye-Ryeong 2009,



Figure 5. The Ecover by Julian Dowle: The garden incorporates welcome home bunting, a 'Dig for Victory' vegetable garden and a traditional English pub

Source: <https://designawards.wordpress.com/category/garden-supplies/>

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유기농업(Bonterra Organic Wine Garden), 기상변화(Osis of ruin), 피부암(Cancer Research UK/Atrixio Outlook Garden), 노숙자(The Shelter Garden), 영국 기독교정신(The Salvation Army & Buildbase Garden- 'From Darkness to Light) 등이 그 예다. 그 중 2005년은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영국적 관심과 더불어 도울(Julian Dowle)이 디자인한 채마와 과수가 심겨진 시골의 코티지 가든이 최고의 정원으로 뽑혔다. 이 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기념한 '첼시 펜셔너의 정원(The Ecover Chelsea Pensioner's Garden)'으로 영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이 꿈꾸었던 그들의 고향을 1940년대 지방 선술집으로 표현하면서(Yoon, 2009) 초기 코티지 정원의 형태인 자급농원(自給農園, Domestic

Garden)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Figure 5 참조).

RHS가 기획하는 플라워 쇼 중 지방 특유의 원예 산업 부흥을 위해 기획된 태튼 파크 플라워 쇼(Tatton Park Flower Show)⁴⁾ 또한 특별한 코너의 운영으로 지역성을 드러낸다. 매해 기획되는 "왕립원예협회 국제화단(RHS National Flower Bed)"이라는 유일한 전시 테마는 브리튼 인 블룸(Britain in Bloom)⁵⁾과 연계해 오늘날 태튼 파크 플라워쇼가 지방 플라워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하는 증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특징을 주제로 조성하여 그 지역의 주제성을 잘 드러낸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지방정부와 학교, 종교회사와 협력하여 경제적 가치를 부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야생적(Wild) 가치를 담은 생태정원

19세기 초반의 코티지 정원의 식물구성은 주로 미학보다는 식물학에 초점을 두었다(Hobhouse, 2015: 419). 이는 라우든이 주장하는 가든네스크(Gardenesque)양식에 따른 것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식물 종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정돈하여 배치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Figure 4 참조). 이후 20세기가 시작할 무렵 윌리엄 로빈슨(William Robinson, 1838~1935)의 자연주의 사상으로 인해 코티지 가든은 자연스러운 식물들의 조합과 배치의 식재 디자인으로 말미암아 '야생정원'이라는 형식으로 진화되었다(Park, 2013).

로빈슨은 런던의 리첸트 파크 식물원에서 야생화와 내한성 초본 식물의 표본을 수집하는 부서에 일하면서 자연스레 영국의 시골경관과 코티지형 정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는데(Hobhouse, 2015: 422), 그는 영국의 야생들판과 숲 등 각지를 답사하며, 식물을 채집하고 교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쌓은 원예 지식과 자연스러운 전원지역의 영국 경관을 하나의 형식으로 양식화하여 새로운 개념의 코티지 정원을 재정립하였다(Park and Yoon: 2013).

실제로 그의 많은 정원관련 저서 중 『야원(The Wild Garden) (1870)』에서는 식물의 성장에 자유로움을 주고, 식물의 색채, 형태, 잎의 성격과 특징을 존중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국의 화훼정원(The English Flower Garden) (1893)』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출간되어 영국의 시골경관에 대한 애정을 비전으로 성장시켰다(Hyams, 1971: 300, Park and Yoon, 2013 재인용). 관목의 하부식재와 산림의 경계와 물가에 자생하는 내한성의 식물과 외래식물을 이용하여 영국 국토에 맞는 자연적인 식재설계에 대한 주제를 발전시키며, 코티지 정원의 저유지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탄생시켰다(Wilson, 2002: 46).

이후 코티지 가든은 여러 나라에 각각의 조건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른 정원의 양식으로 분화되어 가는데 발판이 되었다. 유전적인 이해에 따른 변종의 생산에 관련된 것, 생물권의 개념을 발전시켜 서식처와 식물군락이 중심이 되는 식재 설계, 종 다양성과 시퀀스를 구성하는 등의 양식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야생적 코티지 정원의 효시는 미학적 관점 외에 과학적·생태적 개념이 보태지며, 영국적 정원의 의미를 분화시켰다. 도시 내 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로의 영역의 확장과 절충식에서 비정형식, 그리고 대평원 스타일에 이르는 형식적 분화와 현대정원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 생태적 설계의 예고 및 환경 교육의 장으로써 그 역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Park, 2013).

4. 이상적 시골의 상징으로서 정원(Cottage Ideal)

코티지 가든이 가진 시골에 대한 이상은 곧 상징적 의미로서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이용되었다. 영국 최초의 정원의 도시라 불리는 레치워쓰(Letchworth)는 하워드(Ebenzer Howard)의 이론과 모리스(William Morris)의 이상(Ideal)에 의해 주거지 내(內) 중앙공원과 그랜드 에비뉴, 완충녹지 등의 현대적 그린 인프라의 체계를 제시하였지만, 무엇보다 각각의 주택은 정원이 딸린 영국 교외(특히 코즈월드와 같은)의 코티지처럼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MacCarthy, 2014: 83). 실제로 개인 주택(5,500호)들은 모두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었으며, 그 면적은 185~242m²에 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정원도 보유했으므로 이는 영국 최초의 정원도시가 거시적인 스케일의 녹지공간(중앙공원, 그린벨트, 공공공원)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개인주택정원, 커뮤니티정원)까지 염두한(Park et al., 2016) 통합적이면서도 영국적 그린인프라 시스템의 도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Figure 6 참조).

V. 결론 및 제언

정원은 그 지역의 풍토와 인간의 정신문화를 반영한 총체적 문화의 형태로 존재해왔다. 그 중 코티지 가든은 영국의 근대적 배경과 함께 대중화를 양산한 정원양식으로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을 대표하는 정원문화로 존재한다.

찰스황태자가 가꾸는 영국 근교에 위치한 하이그로브(Highgrove) 또한 코티지 정원의 양식을 주로 따르며, 다양한 초화와 영국 자생종들을 자연스럽게 식재하여 오가닉한 관리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정원이 “나의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내 영혼을 살찌워 주는 곳이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정원일의 즐거움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Sung, 2016)”이라 주장하며, 영국 국민들에게 정원의 효용과 가치를 전파한다.



Figure 6. c1960 Garden city series postcard, Cottage Hitchin Road, Letchworth, UK(above) Diagram of garden city of Letchworth by E. Howard(blow)

본 연구는 영국의 근대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출현한 코티지 가든의 발생 배경과 다양한 특성을 고찰하여 코티지 가든이 내포하고 있는 영국성을 읽어 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영국인의 애국주의는 자유와 풍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국민성은 전원적 잉글랜드의 보존으로 이어졌다. 시골에 대한 영국인들의 이상(Ideal)은 다양한 문학 및 예술적 산물로부터 영국인의 자연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식물의 도입과 원예과학의 발달은 코티지 가든의 대중화를 실현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초기 코티지 가든 양식은 도시화에 따른 중산계층의 교외이주로 인한 채원이 존재하는 자급농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근대사회의 상황들은 예술적 면모의 지역 특유의 토착정원의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진화된 와일드가든은 영국의 야생을 재현한 것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원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정원이라는 문화적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근대적 역사 기원과 변화에서 탐구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영국성의 형성시기에 관해서 역사가마다 다른 주장이 있었으며, 다양한 영국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풍경식 정원으로 17~18세기 유럽조경사를 풍미했던 이슈와 관련해서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인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어 가정집 정원을 조영하던 것은 코티지 가든이라는 대표적 정원양식을 탄생시켰고, 이러한 대중의 가드닝은 지속과 변형을 거치며 오늘날에 이른 점은 영국만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큰 축이 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대표적 여가

활동으로써 가드닝은 주요 순위에 있으며, 첼시 플라워 쇼는 영국의 정원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와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는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적 장치들의 제공으로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일상적 정원문화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행사와 정치적 도구로서 정원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과연 한국적 정원문화에 대한 고민을 전통적 측면에서만 찾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대적 현상이 현재에 이른 영국의 대중정원문화가 영국성으로 자리 잡았듯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이슈들이 한국적 정원문화 구축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를 테면 이미 수년전부터 두드러진 귀농현상, 도시농업과 양봉, 베란다 정원, 아파트가 아닌 협소주택을 선택하는 젊은 부부들, 타운하우스 열풍, 테라스가 있는 카페거리에 밀집되는 사람들, 공원관리에 도시정원사의 등장 등은 우리가 얼마나 정원문화에 목말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수년전 히르시펠트가 정원을 통한 도덕적 교화가 국가적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원복지 이론을 주장한 것처럼, 현재 우리의 정원문화가 우리다움을 만들고, 이는 곧 한국적 정원문화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정원과 국가정체성에 관한 사례로서 근대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진부한 경구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화와 사고에서 벗어나 타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때 우리의 참모습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영국의 근대 조경사의 흐름이 결코 인류보편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양의 앞서간 발자취를 탐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확장하여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주 1. 근대 영국의 정원양식은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브라운식의 장엄한 조원이 구식이 되어 버리고, 이국적 식물의 도입을 전시기 위한 다양한 정원양식(Gardenesque)의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랩튼(Humphry Repton)은 정원에 따라 화원구역을 만들기 시작했고, 테라스에 화분을 두는 등 브라운식 정원양식을 재편해 나갔다. 이러한 양식의 변화는 부를 축적한 중산계급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정원의 형태로서 근교에 집을 마련하고, 실용적인 정원의 형태로 구현해 나갔다. 이렇듯 코티지 가든은 근대영국 중산계층의 문화적 소비를 함축하는 결과물로서 대중적이면서도 영국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Cho(2016), The study about popularization of gardening and its development process in the UK: Focused on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in the 19th century. J.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3): 47-55.

주 2. 영국성이란 근대적 개인의 정체성에서 확보된 것으로, 이는 근대 국가가 국민 문화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도입된 계몽과 교육 등을 통해 만들

어진 정치적 의도이다(Hobsbawm, E. and Ranger, T, 2004). 또한 영국성이라는 영어적 표기에 관해서 공식적으로는 영국인의 국민성 혹은 정체성을 말할 때 'Britishness' 혹은 'British National Identity'로 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영국이 동질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일 때 가능하다. 영국은 정치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잉글랜드의 주도로 웨일즈(1536), 스코틀랜드(1707), 북아일랜드(1801) 순으로 합병이 이루어져서 연합왕국 United Kingdom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잉글랜드의 제도와 문화가 영국인의 생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각 지역은 잉글랜드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독자성을 거의 상실했다. 그래서 영국의 정체성을 말할 때 잉글랜드의 정체성 곧 Englishness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umar의 *The Making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p. 4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 3. 풍경식 정원이 갖는 영국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Phibbs, J. "The Englishness of Lancelot 'Capability' Brown", Garden History 31, no.2 (2003):122-140., Müllenbrock, H. J., "The 'Englishness' of the English Landscape Garden and the genetic role of literature: a reassessment", The Journal of Garden History 8, no. 4: 97-103,가 있다.

주 4. 1860년부터 RHS는 새로운 플라워쇼를 개최하려는 노력을 피했다. 당시 협회는 왕립농업협회 및 각 지방의 원예협회와 협조하여 지방에서 열린 플라워쇼를 왕립원예협회의 플라워쇼로 전환하여 협회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시도했는데, 진행 중에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전면 취소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그 중 태튼 파크 플라워 쇼(Tatton Park Flower Show)는 그 지역 지방원예 산업을 촉진시키는 목적이 개최 의도 중 하나로, 태튼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면서 초창기 영국 남쪽지역에 정원산업 기반을 둔 기업들의 참가율이 점차 증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Yoon, 2008).

주 5. 도시와 타운 및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가드닝으로써 1964년부터 RHS는 '브리튼 인 블룸(Britain in Bloom)'이란 캠페인의 운영을 맡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4,000여개의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이 참여하여, RHS 본부와 9개의 광역지역 별(West Midlands, South West, South East, London, East of England, Yorkshire, North East, North West, Scotland)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5개의 카테고리 별로 우승팀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그룹들의 결과물은 원예적 우수성(Horticultural Excellence), 환경 적응도(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커뮤니티 참여도(Community Participation.)를 주요 항목으로 평가되어, 70개의 커뮤니티를 지역예선(Regional Competition)을 통해 1차 차출 후 본선(National Finals) 진출을 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캠페인에 참여한 그룹들은 185,000그루의 교목과 718,000의 관목을 심었다. 참여한 봉사자들을 인건비로 산출했을 때 약 7천만 파운드(약 1,170억 원)가량의 비용의 가치가 있었으며, 그들은 현재까지도 총 80,937헥타르(약 245,000,000평)의 공공 공간을 가드닝하고 있고, 이는 최근 3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조사되고 있다(RHS Annual Report 2014/2015).

References

1. Anzai, S. translated by Kim Y. G and J. H. Choi(2005) Paradoxes of the Hortus Apertus: Aesthetics of the English Landscape Garden,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 Campbell, K.(2004) British Gardens in Time. Frances Lincoln Limited, pp. 92-153.
3. Cho, H. R.(2016) The study about popularization of gardening and its Development process in the UK: Focused on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in the 19th century. J.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3): 47-55.
4. Colls, R.(2004) Identity of Eng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04.
5. Daniels, S.(1994) Fields of Vision: Landscape Imagery and National Identity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s, Polity Press, p. 211, 229.

6. Groth, P. and T. W. Bressi(eds)(1997) *Understanding Ordinary Landsca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7. Hauser, A. translated by N. C. Beak, M. W. Um(1999) *The Social History of Art*, Vol. 3, Seoul: Changbi Publisher Inc. pp. 3-6.
8. Helmreich, A.(2002) *The English Garden and National Identity: The Competing Styles of Garden Design, 1870-19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Hwang, J. Y.(2014) *Urban Parks as Modern Invention of London and Paris in Nineteen Century*,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0. Hobsbawm, E. and T. Ranger translated by Park J. H., M. S. Jang (2004) *The Invention of Tradition*, 1983, Humanist.
11. Hobhouse, P.(2004) *Plants in Garden History*, Pavilion Books, pp. 222-225.
12. Hobhouse, P. translated by J. H. Choi, S. J. Yoon and J. H. Ko(2015) *Garden History of Western*, Seoul: Deaga.
13. Hunt, J. D.(2012) *World of Gardens*, London: Reaktion Books Ltd.
14. Hyams, E.(1971) *A History of Gardens and Gardening*, London: Pavilion Books Ltd.
15. Joo, E. W.(2003) *National identity in America and landscape in 19th-20th Century*, *Society and History* 63, pp. 123-160.
16. Kim, I. H., and K. Y. Huh(2008) *The beginning and changes of cottage garden style in New Zealan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11(4): 83-96.
17. Kingsbury, N.(1996) *The Ultimate Planting Guide*, Ward Lock Ltd.
18. Korea Landscape Architecture Newspaper Article, no. 416, 6th October 2016, p. 5.
19. Kumar, K.(2003) *The Making of English National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 Lee, J. K.(2014) *Find Out from the British Garden*, Paju: Doseochulpan Hansup.
21. Lowenthal, D.(1991) *British National Identity and the English Landscape Rural History* 2(2): 205-230.
22. MacCarthy, F.(2014) *William Morris and His Legacy 1860-196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3. Marsh, J.(1982) *Back to the Land: The Pastoral Impulse in Victorian England from 1880 to 1914*, Quartet Books, p. 8.
24. Morris, W., translated by H. K. Park(2008) *News from Nowhere*, Filmac.
25. Musgrave, t., C. Gardner and W. Musgrave. translated by Lee, C. S. (2004) *The Plant Hunters*, Seoul: Nexus Books.
26. Owen, J.(2004) *Gardens through Time: Celebrate 200 Years of Gardening with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BBC Books.
27. Park, E. Y. and H. S. Lee(2014)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te neoclassical style in American gardens: Focused on the analysis of Dumbarton Oaks by Beatrix Farrand*,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2): 159-166.
28. Park, E. Y.(2013) *Emergence of natural gardens and differentiation of garden style*,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11): 1-9.
29. Park, E. Y. and S. J. Yoon(2013) *Inference of the conceptual model of wild gardens: A comparative study of William Robinson and Gertrude Jekyll*,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4): 62-69.
30. Park, E. Y.(2010) *A study on the method of color-centered planting design in the English gardens: Focusing on Munstead Wood, Sissinghurst, Great Dixter, Hidcote Manner*,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8(1): 102-112.,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8(4): 144-153.
31. Park, E. Y.(2010)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flowering plants used in the English White Gardens: Focusing on Sissinghurst, Barrington Court. Built in the Early 20th Century*.
32. Park, J. H.(2006) *Englishness, Very Englishness*, Guiparang, pp. 57-139.
33. Park, J. M., H. R. Cho and J. S. Sung(2016) *A study on the progress and implication of garden c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 of Urban Planing*, under examination.
34. Peak, N. Y., J. S. Lee, and H. Kim(2014)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garden in the early national period in America: Focused on the analysis of Paca's Garden, Mount Vernon and Monticello*, *J.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4): 132-142.
35. RHS Annual Report 2014/2015.
36. Ritson, C.(2003) *The English Garden: A Social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37. Sung, J. S.(2012) *Ideals represented in gardens: Focused in Thomas Jefferson's Academical Village and Monticello*, *J.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0(1): 69-80.
38. Sung, J. S.(2016) *The Life of Celebrity through Garden*, Lafent (Noksaksiron).
39. Wiener, M.(1992) *English Culture and the Decline of the Industrial Spirit 1850-1980*, Penguin, p. 72.
40. Wilson, A.(2002) *Influential Gardeners: The Designers Who shaped 20th-century Garden Style*, London: Mitchell Beazley, p. 46.
41. Wright, P.(1991) *On Living inan Old County: The National Past in Contemporary Britain*, Verso, p. 82.
42. Yoon, S. J.(2008) *Flower Show and Garden Culture in UK*, Paju: Tree City.
43. Yoon, S. J.(2009) *Study of Garden Design in Chelsea Flower Sho in th UK: Focused on 2001~2009*, *J. of Environmental Studies*.
44. <https://www.nationalgallery.org.uk/paintings>
45. <https://designawards.wordpress.com/category/garden-supplies/>
46. <http://www.letchworth.com/gardeningcity>
47. <https://www.liveauctioneers.com/>

Received : 14 November, 2016

Revised : 13 December, 2016 (1st)

: 09 January, 2017 (2nd)

Accepted : 09 January, 2017

3인익명 심사필